美 소노마 카운티 티베트 불교 단지 조성

카자데로 지역에 '레트나 링 명상 센터' 14일 개원



캘리포니아 북단의 소노마 카운티의 카자데로 지역에 개원한 레트나 링 명상 센터(Ratna Ling Retreat Center) 모습. 티베트를 상징하는 색인 노란색의 금속 패널로 마감된 인쇄동의 모습이 이채롭다.



레트나 링 명상 센터의 수행동 내부 모습. 수행 참가자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환경재인 삼나무 자재로 내부를 마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티베트 불교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섰다.

〈The Press Democrat〉 지는 7월 19일(현지시간) "소노마 카운티 최고의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카자데로(Cazadero) 언덕에 '세계 평화와 자비기도' 를 모토로 티베트 불교문화 복합단지인 '레트나 링 명상 센터(Ratna Ling Retreat Center)' 가 개원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해안가 언덕 40만 5천㎡ 부지에 티베트를 상징하는 노란색의 금속 패널로 마감된 인쇄 · 주거동, 삼나무로 마감된 수행동, 도서관 등의 구성으로 세워졌다"고 설명한 〈The Press Democrat〉지는 "향후 티베트 불교수행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티베트 불교 관련 경전이나 교양서 등을 펴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티베트 불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노마 카운티에서 매주 법회를 봉행할 곳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밝힌 브루스 존슨(Bruce Johnson) 법사는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4년간 캘리포니아 티베트 불교공동체의 서원과 노력이 한 데 모인 결과"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티베트 불교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존슨 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카자데로 언덕에 티베트 명상 센터를 개원하기 위해 '개원추진위원회' 를 결성하는 한편 기금 조성, 부지 매입, 주민 설득 등 개원에 따른 사전 작업에서 산파역을 톡톡히 해냈다.

40만㎡ 부지, 명상공간 · 농장 마련
센터 운영에 지역 주민 참여 유도
티베트 불교의 저변 넓힐 전망

"레트나 링 명상 센터를 개원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 브루스 존슨 법사는 "소노마 카운티의 청정 지역에 특정 종교의 문화복합단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지역 타종교 주민의 반대, 지역 환경 단체의 반대, 카자데로 지역에 리조트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던 지역 중견 기업의 반대 등에 직면해야 했다"고 말했다.

〈The Press Democrat〉 지에 따르면, 소노마 카운티 자치위원회는 브루스 존슨 법사의 센터 개원 계획서를 받고서 무엇보다 '자연 훼손' 을 걱정했다. 청정 지역에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자칫 화재 등의 인재로 훼손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공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했던 지역 주민들은 종교시설보다는 상업 시설을 세워 지역 경제 발전에 단초가 되길 희망했다.

"소노마 카운티 자치 위원과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브루스 존슨 법사는 "자치 위원은 센터 건축에 방염재나 친환경재 등을 사용한 설계도면으로 설득했고, 지역 주민은 상업 리조트보다는 힐링을 추구하는 종교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게 지역 발전에 이롭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he Press Democrat〉는 "레트나 링 개원추진위원회는 센터 건축에 참여할 인력과 건자재 일체를 소노마 카운티에서 충당하는 등 지역과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개원과 동시에 종교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목했다.

또한 〈The Press Democrat〉는 브루스 존슨 법사의 말을 인용,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채식을 기본 식단으로 삼고 있다"고 전하고 "식자재 대부분 명상 센터 인근에 조성된 농장에서 재배될 것"이라며 "농장은 지역 주민에게 임대하고 생산물 전량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어서, 이 역시 지역 주민과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존슨 법사는 "레트나 링 명상 센터는 개종보다는 힐링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운영하기로 내부적인 공의를 모았다"며 "따라서 종교를 떠나 누구나 찾아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 힐스버러 카운티 일깨우다

파르바와티야 카담파의 명상 프로그램에 주목

美 플로리다 힐스버러(Hillsborough)와 피넬러스(Pinellas) 카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 불교명상 관련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있다고 〈Tampa Bay Times〉 지가 보도했다.

두 카운티의 주민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파르바와티야 카담파(Parbawatiya Kadampa) 불교센터의 '명상 프로그램' 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과정"이라고 설명한 켈상 cyrdis(Kelsang Chokyan) 스님은 "6주 동안 주 3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민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 위트만(Sarah Whitman) 씨는 "몇 년 전부터 십대 자녀를 키우며 '양육 스트레스' 가 쌓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부터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자녀를 대할 때도 여유를 찾고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리사 바론(Lisa Baron) 씨는 "간호사란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매 순간 그렇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이곳에서 배운 '긍정하는 방법' 이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르바와티야 카담파(Parbawatiya Kadampa) 불교센터의 '명상 프로그램' 에는 위트만, 바론 씨 외에도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Tampa Bay Times〉 지는 "이제 불교는 두 카운티 시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파르바와티야 카담파의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횟수가 늘어날수록 두 카운티의 시민들은 '치유의 참 맛' 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플로리다 힐스버러와 피넬러스 카눈티에서는 티베트 불교명상 프로그램이 자주 열린다.

중국서 티베트인 승려 또 자살

현지 "공안 당국 소통 통제해 소식 늦게 전해져"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 분리 ·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티베트인 승려가 또 중국 당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월 17일(현지 시간) "간쑤(甘肅)성 간난(甘南) 티베트자치주 샤허(夏河)현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 라부렁(拉卜楞)사에서 승려 타브케(24)가 지난 9일 당국의 종교 탄압을 비난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타브케의 동료 승려들은 그가 자살에 앞서 사원 내 승려 수 제한, 경전 강의 내용 간섭, 달라이 라마의 사진 걸기 금지 등 당국이 종교적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자살할 계획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공안 당국이 외부와의 소통을 통제해 타브케의 자살 소식이 늦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한 티베트인은 지금까지 131명에 달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RFA는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티베트인 승려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등 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 △법률 준수 △항위 시위 참가 및 분신 금지 △애국 교육 참가 △외부와의 연락 금지 등 11개 항의 규제가 담긴 문건을 배포하고 승려들과 주민들에게 서명을 하거나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은 기자**

"이제 가면을 벗고 '나' 와 대면하세요"

불교명상가 타라 브랙, 워싱턴 D.C.서 강연

세계 정치 1번지 워싱턴 D.C.에서 한 명상 지도자의 '비판적 조언' 이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명상 지도자는 바로 타라 브랙(Tara Brach) 박사이다. 임상 심리학자인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불교 명상가로 꼽히고 있으며, '워싱턴 통찰명상 공동체' 를 운영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워싱턴 D.C. 시민들이 주목한 그의 '비판적 조언' 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고, 그 순간에 갈등하는 자신을 관찰해 진짜 '나' 와 대면하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침내 타인과 세상을 껴안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지는 "우리는 자신의 취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 쓰기' 라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 생각 등을 속이고 있다"는 브랙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자신의 '본성' 을 깨달음으로써 지속적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워싱턴 D.C.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랙 박사는 〈워싱턴 포스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아프리카 한 부족은 부족민 개개인의 질병을 부족 전체의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부족 전체가 치료에 참여한다"에 주목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나, 상처와 절망 속에 울고 있는 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나, 그 모든 나를 스스로 보듬고 돌보는 능동적인 지혜를 사회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신뢰와 소통"이라고 전제한 브랙 박사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쓴 '가면' 을 벗고, 그 이면의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명상을 결합한 브랙 박사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운용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명상가 타라 브랙

